

반도체 정상궤도 복귀 성으로 증명한 리더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3주년

반도체 영업이익 12.1조 회복
매출 86조, 사상 최대치 경신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 강화
R&D 투자로 미래 기술 선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았다. 대법원 무죄판결 이후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 행보에 나선 그는 “성으로 리더십을 증명하겠다”던 소신을 바탕으로 사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삼성의 버팀목인 반도체(DS)부문이 침체를 딛고 회복 기세를 보이면서 이 회장의 경영기조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따른다.

〈관련기사 3면〉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로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10월 27일, 부회장 승진 10년 만이자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지 4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다.

이 회장의 취임 3년 동안 가장 주목받는 사업 성과는 단연 반도체 부문이다. 지난 3년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다소 부진을 겪었다. 특히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산업의 흑반기 속에서 시장 규모는 2023년에 전년 대비 11.1% 감소하며 침체가 본격화됐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임원 세미나에서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 경영진부터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사측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시 글로벌 D램 1위 자리를 SK하이닉스에 내주며 삼성전자 안팎으로 위기감이 번지던 상황이었다.

이 회장은 반도체 부문의 정상 궤도 복귀를 위해 근원 경쟁력 회복에 주력

해 왔다. 그 결과 위기론이 제기됐던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 3분기 삼성전자는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영업이익은 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매출도 8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상반기 침체했던 반도체 사업이 크게 개선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 회장이 직접 글로벌 현장을 누비며 경영 전면에 나선 점이 있다. 테슬라, 애플,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성과가 이어지며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테슬라와 23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8월에는 애플의 아이폰용 이미지센서로 추정되는 칩 공급 계약도 확보했다. 최근에는 70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오픈AI의 초거대 AI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어려운 여건에도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해 온 점도 주목된다. 삼성전자의 연구개발비는 올해 상반기에만 18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 지수가 나오고 있다.

/뉴스시스

‘코스피 4000’ 시대 열었다 삼성엔 ‘10만전자’ 새 역사

반도체 초호황·APEC 기대감
SK하이닉스 53.5만원 최고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하며 국내 주식 시장의 새 역사를 열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호황기) 기대 등으로 ‘십만전자’ (주당 10만원)의 벽을 깼다.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57% 오른 4042.8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2.22% 상승한 902.70에 마감했다.

〈관련기사 3면〉

‘코스피 5000’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는 지난 6월 20일 3000선을 넘은 이후, 석 달여 만인 지난 달 10일 종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 3314.53을 기록했다. 이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채 한 달이 안 된 지난 2일 3500선마저 뚫었고 거침없이 달린 끝에 4000선을 찍었다. 연초 이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68%로 주요 30여 개

나라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24% (10만2000원), 4.90% (53만5000원) 뛰며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썼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3주년을 맞은 이날 삼성전자는 ‘십만전자’ 고지를 밟았다. 지난 2018년 액면 분할 이후 한 차례도 넘지 못했던 ‘10만원 벽’을 이날 넘어선 것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최근 잇따르는 수주 소식, 주가 부양을 위한 삼성의 자사주 매입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코스피를 4000선으로 올려놓은 건 외국인투자자의 매수세였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과 미·중 관세 전쟁 1년 ‘휴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대한 기대감 등에 베풀린 것이다. 외국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19조원이 넘는 주식을 샀다.

〈3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lkova@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세계란 무대에서 국가대표란 이름으로

업비트가 APEC 2025
성공 개최를 응원합니다

2025 APEC CEO Summit 퓨처테크포럼 : 디지털자산
Connecting the Future of Finance

일시 2025. 10. 30. 오전 10시
장소 경주예술의전당 원화홀

APEC CEO SUMMIT KOREA 2025
APEC CEO SUMMIT 2025 공식후원사 업비트

두나무 주식회사 준법감사인 심사필 제25-0189호 (25.10.13~26.10.12)